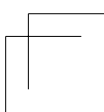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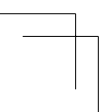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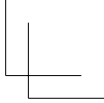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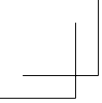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이하 커뮤니티 알)은
청소년·청년 HIV/AIDS감염인들의 인권을 고민하며 활동하는,
자조모임이자 인권단체이다.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국제에이즈학술대회(ICAAP10)에서 HIV/AIDS감염인의 척박한
인권현실을 경험한 청소년·청년 활동가들이 오랜 고민 끝에,
2012년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에 맞춰, 발족하였다.
알의 주된 설립목적과 활동내용은 청소년·청년 HIV/AIDS감염인의
네트워킹과 인권증진이다. 이 책은 커뮤니티알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알림(R림)의 글을 모아낸 것이다.



들어가며; 포니의 한마디 말

우리 HIV감염인들은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에 대해 절대 알리지 못하면서도 알리지 못해 슬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없이 글로써 알리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말없이 읽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니가 뭔데 날 거부해?	7
혐오와 차별속의 나	11
송이와의 속풀이	15
저스티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7
커뮤니티 알 도약이벤트 행사스케치, '회동(會同)'	33
밭하늘과 맥주를 좋아하는 '몰로'의 이야기	41
'나초'와 '칠리'의 평범한 사랑이야기	47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53

노콘 항문섹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_ PL과 MSM의 새로운 관계맺기	59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평범하게 지내는 준우의 이야기	71
나는 왜 HIV 감염인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 지는가?	77
HIV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	
_ 생각보다 가까운 의료차별	83
어떤 농담	91
“우리 존버탑시다.”	95

숨긴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

니가 뭔데 날 거부해?

상훈

얼마 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HIV/AIDS예방 및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HIV/AIDS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 혐오의 논리와 그에 대한 반박, HIV감염인과 함께하는 대화시간을 갖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평가서가 나왔고 부정적인 내용 중에 조금은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감염인의 힘든 상황을 알리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과 “감염인들이 밖으로 나옴으로써 공포를 높여 이후의 감염인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나를 매우 힘들게 했다. 그 교육의 대상이 청소년·청년 성소수자였던 터라 이러한 의견들이 ‘성소수자’의 의견이라고 생각되어 더욱 더 나를 힘들게 했다.

개인적으로는,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로서 세상을 향해 그 존재를 스스로 알리며 부당함과 차별에 분노해온 ‘존재의 정치’가 HIV/AIDS 감염인 당사자에게도 필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HIV/AIDS문제는 덮는다고 없어지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직시해야 하는 현존의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HIV/AIDS문제는 감염인 당사자의 목소리 없이 해결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HIV에 감염된 누군가는 계속 혐오표현에 상처를 받고 올바른 의료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직업적 차별을 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될까 두려워한다.

감염인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덮으려고 하는 “니들끼리 조용히 동성애하면서
살아라.”라고 말하는 혐오조장세력과 무엇이 다른지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 차이점을 도무지 모르겠다. 물론 대부분의 HIV/AIDS당사자는
자신의 감염사실을 숨기고 지낸다. 감염사실을 굳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보편적인 생활들은 문제없이 사는 것이 가능하니까.
그런 생활 중에 누군가가 “나 감염인이오!” 하고 나와서는
“감염인으로서 사는 이 세상은 이런 문제와 저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부감이 들거나 알지 못하는
것을 접하게 되었을 때의 두려움이 몰려 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HIV감염인이 직면한 차별과 혐오라는 사회적 문제들은
숨긴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 숨어있는 지뢰처럼 터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터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성소수자들과 HIV/AIDS당사자들은 비슷한 지점이 많다. HIV감염인
중 적지 않은 수가 남성동성애자라는 교집합부터 성소수자보다 훨씬
적지만 HIV/AIDS당사자들은 사회적인 소수로서 사회적인 차별과
혐오가 심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HIV/AIDS당사자와 성소수자, 두 집단은 분명 해결해야 할 지점과
문제들이 비슷하지만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부에서조차 HIV/
AIDS혐오는 뿌리깊게 박혀있다. 다양성을 주장하며 부당함에 불행을
느끼는 집단이 다양한 질병 중에 전염력도 낮고 전파 경로도 확실하며
감염되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HIV에 대한 혐오를 멈추지 않는,
그 모순적인 모습이 안타깝다.

혐오조장세력들은 동성애와 HIV/AIDS를 동시에 엮어 혐오에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일부 성소수자들은 혐오조장세력의 HIV/AIDS를 이용한 혐오선동에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이성애자도 HIV/AIDS에 걸릴 수 있다며 HIV/AIDS 감염된 수많은 남성 동성애자들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리고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HIV감염인구 중에 남성비율이 높다며 HIV/AIDS감염인들을 '성매매충'으로 매도한다. 언론은 HIV/AIDS의 혐오를 이용한 헤드라인을 내며 각종 괴담과 미디어 역시 HIV/AIDS는 늘 혐오로 이용한다.

혐오조장세력의 무조건적인 HIV/AIDS에 대한 혐오는 잠재적 HIV/AIDS당사자의 HIV확진검사에 대한 장벽을 높이게 된다.

또한 양성판정을 받은 감염인의 스스로 삶을 비관하게 만들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저해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HIV감염인 전부가 남성동성애자는 아니지만, 많은 HIV/AIDS 당사자들이 MSM임을 감안하여 성소수자 그룹 내에서도 HIV/AIDS 당사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HIV감염인과 동성애자의 혐오를 분리하기 위한 HIV감염인이 성매매충이라는 프레임 역시 혐오×혐오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HIV/AIDS에 대한 인식이 나쁘니 동성애자 그룹과 분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HIV/AIDS에 대한 인식이 왜 나쁘고 혐오가 왜 잘못된 것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인 역시 HIV혐오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언론의 윤리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HIV/
AIDS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하면 얼마나
심하겠어?**

혐오와 차별속의 나

찰리

최근 HIV/AIDS와 관련된 이슈로 온 나라가 뜨겁다.

덩달아 나 또한 맘이 편하지 않다.

“많은 혐오와 차별에 노출된 나.”

사실 내가 감염인이 되었을 때 ‘HIV/AIDS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하면 얼마나 심하겠어?’ 라는 생각 했다. 하지만 최근 아니 어쩌면 감염인이 되었을 때부터 “나는 많은 혐오와 차별을 받았으리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하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료거부도 당했고, 혐오가 섞인 발언도 꽤나 들었던 것 같다. 진료거부를 한 동네병원에서는 “자신의 병원은 감염인을 위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사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진료거부라는 생각보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하지? 다른 곳도 똑같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들었다. 결국 치료는 약을 받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도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았던 것 같다. 감염인이란 이유로 2인실을 주거나 간단한 시술도 마취를 해야 하는 수술로 치료를 하는 등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치료를 받았다. 이때부터 병원이란 곳은 나에게 불편한 곳이자 필요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다.

“에이즈 년”, “네가 무섭다”

혐오발언 또한 생각 보다 많이 들었던 것 같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발언이 있다. ‘에이즈 년’ 물론 단어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러한 발언을 한 사람이 활동가였기 때문이다. 이 말을 인권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들으니 그 당시 아무생각도 할 수 없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믿고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이자 활동가가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에이즈년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에게도 나의 질병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지.”하고 다짐하게 되었다. 이것 말고도 군복무중인 동생에게 “나도 형처럼 감염인이 되어서 군대에서 벗어나고 싶다.”,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냥 네가 무섭다.”라는 등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혐오표현을 접했다.

“질병이 아닌 혐오와 차별 때문에 죽어간다.”

요즘 내 마음에 와 닿는 글귀가 있다. HIV/AIDS 감염인들은 질병이 아닌 혐오와 차별 때문에 죽어간다는 것이다. 그렇다. 최근 감염인들은 의학의 발전 때문에 비감염인들과 다를 것 없이 잘 살 수 있고 잘 살아가고 있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건 HIV/AIDS가 아닌 여느 사람들의 말 한마디와 행동이다. 인터넷 그리고 SNS에서 HIV/AIDS와 관련된 혐오 기사나 혐오의 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무지에서 혐오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글을 쓰는 사람들은 HIV/AIDS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고 쓰는 것일까? 자신들이 쓴 글 때문에 누군가는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쓰는 것일까? 나는 무지에서 혐오가 만들어 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혐오는 곧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사람들이 무지에서 벗어나면 된다는 것이다.

“12월 1일은 에이즈의 날”

12월 1일은 에이즈의 날이다. 곧 있으면 에이즈의 날이다. 가능한 한 HIV/AIDS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또 서로 이야기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와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

나

인터뷰하다가

울 것 같아

송이와의 속풀이

송이

1) 언제 감염이 되셨나요?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송이: 2008년. 몇 월 달인지는 모르겠어요.

소주: 감염사실을 알 때 비밀보장의 원칙이 지켜졌나요?

송이: 네. 처음에는 그냥 감기 기운 때문에 갔는데,

전 남편이 그때까지 HIV+인지 몰랐었어요.

의사선생님이 큰 병원에 가서 검사받아보라고 하셨고,

나중에 여쭙보니깐 전 남편이 HIV+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인천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확진 받았어요.

소주: 확진 받았을 때 감정이 어땠어요?

송이: HIV에 대해 아는 것이 아예 없었어요.

평생 가는 질병인지 뭔지도. 그냥 감기처럼 아픈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었어요.

소주: 계속 약을 먹으면서 관리해야 하며, 편견과 낙인이 심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감정은 어땠어요?

송이: 처음 3년 동안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았어요.

이혼하고 나서 큰 병원에 갔을 때, 처음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HIV에 대해) 너무 편안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그냥 약만 먹으면 비감염인과 똑같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2) 감염되기 전과 후의 삶은 많이 다른가요?

소주: 그럼 감염되기 전과 후의 삶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겠네요?

쑹이: 달라졌어요. 3년 동안 치료를 못 받은 거잖아요.

바이러스 수치도 그렇고 CD4수치도 그렇고... 그래서 병원에 바로

입원했고, 그 후로도 1년에 3~4번씩 한 두 달간 입원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병원에만 있게 되고. 퇴원하면 추스르고 쉬고, 일하려고 하면

또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쓰러지고... 또 병원에 가면 또

입원하고...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소주: 그것 말고 달라진 건 없나요?

쑹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저는 지인들한테 (HIV 감염 사실에 대해) 다 얘기를 했어요.

전부터 아토피가 있어서 온몸에서 피가 나다보니 무의식중에도

사람들이랑 스킨십을 하다보면 피가 묻을 수도 있으니깐요.

조심한다고 해도 혹시 모르니까 지인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가족을 포함해서.

70~80%는 제 곁을 떠났어요.

소주: 어떻게 해 나 인터뷰하다가 울 것 같아

쑹이: 왜 이걸 내 얘긴데(웃음) 이게 무뎠어지는 것 같아.

이런 일을 겪었구나 생각하면 울컥할 때도 있는데...

소주: 그럼 10명중에 2~3명만 남은 거 아니에요...

쑹이: 원래 있었던 지인들 중에서 4~5명 정도 밖에 남지 않았어요.

대신에 오픈하면서 새로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 괜찮데요.

소주: ...

쑹이: 그 많은 지인들이 떠나갔을 때에는 많이 슬플 줄 알았는데, 살짝만

슬펐어요. 제 자신이 이 질병에 대해서 은연중에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 것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슬프진 않았어요.

소주: 처음에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대답했는데?

쑹이: 사람들이 떠날 때 한마디씩 하고 떠나가잖아요.

“재는 더러운 아이”, 아니면 “어차피 지가 전남편을 만난 건데
똑같은 것 끼리 만나서” 이런 식으로 욕을 하기도 했어요.

“그냥 나가 뒤져라”는 약과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엄청 심한 말을
했는데 이를테면 “너랑 똑같은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아서 니가
키워라”. “너네 부모도 참 불쌍하다.” 이런 말들이었어요.

소주: 세상에 진짜 나쁜 사람들..

쑹이: 무더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이런 얘기하는 것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소주: 그 외에 달라진 점은?

쑹이: 비감염인이었을 때는 어디가 아파도 병원을 안갔어요.

지금은 병원을 주기적으로 가서 피검사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고,
자잘 자잘한 질병은 많지만 큰 병 같은 것은 없어요.

소주: 오픈하고 만난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점?

쑹이: 그렇죠. 특히 우리 오빠.

소주: 그 얘기는 이따가 해요(웃음)

쑹이: 네, 사랑에 관련해서(웃음)

3) 감염여부를 떠나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가요?

소주: 한국에서 쪽 살아오셨죠?

종이: 돈이 없어서 해외를 못나갔네요. 나가고 싶었지만(웃음)
돈을 벌 수가 있어야지.

소주: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때요?

종이: 여남을 떠나서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만
감염여부를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감염되기 전의 여성으로서의 삶과 감염된 여성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주: 어떻게 다른가요?

종이: 감염인 되고 나서, 제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포기하신거죠.

쫓겨났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그 때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 집
근처에 고시원에서 살게 됐는데.

어떻게든 밝게, 어떻게든 비감염인들 사이에서 잘 지내보려고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고시원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어느 날은 남자친구랑 술을 먹고 고시원에 들어왔는데, 술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남자친구가 고시원 입구까지 데려다 줄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는데, 문을 잠그고 잤죠.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깨보니 고시원 총무가 제 눈앞에
있더라고요. 바지를 벗고 성관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진술을 할 때 보니까 고시원 총무가
문을 따고 들어왔다고.. 그렇게 고시원 총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넘어가서 검찰 쪽으로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저를

소환하더라고요.

다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니가 좋아서 한거 아니냐고

변호사인지 검사가 묻더라고요.

니가 좋아서 그 사람 꼬신거 아니냐고.. 거기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저 HIV환자입니다. “제가 미쳤다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했겠습니까.” 라고 답변했어요.

그랬더니 검사인지 변호사인지 모를 사람의 태도가 너는

감염인이니까, 고소를 취하하라는 식으로.. 고소취하장인지

몰랐는데. 그 종이를 갖다놓고 지장 빨리 찍으라고 했어요.

분명 경찰서에서는 총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고시원에 CCTV에

총무가 문 따고 들어오는 것까지도 찍혔어요. 그런데 질병을

얘기하고 나니까 더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맞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총무가 감염이 되면 니가

처벌받는다, 그러니까 싸인 빨리 해라”

소주: 진짜 나쁜놈이네요.

쑹이: 지금도 얘기하면서 그때 상황이 다 생각이 나요. 그때 너무

무서웠거든요.

남자들이 제 주위를 다 둘러싸 서서 음박질렸어요. 제가 죄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소주: 힘드셨겠다...

쑹이: 그땐 진짜 무서웠어요

소주: 누나 괜찮아요? 아까 얘기한대로 그만 해도 되는데..

쑹이: 다 지난 일인데... 괜찮아 그냥 문득문득 떠올라서 그 상황들이...

쑹이: 제가 비감염인이었을 때 강간 건이 하나 더 있어요.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비감염인이었고 전남편을 만나기 전이었어요.

성인이 되고나서 게임 정모에 나갔을 때 제가 팔에 깃스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운명진이어서 일을 해야하다보니 반 김스를 풀고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강간을 해서 사람들이랑 신고했어요.
원스탑 센터에 가서 진술을 하고, 그때는 검사님이랑 경찰
아저씨들도 그렇고 다 “얼마나 힘드냐” 위로도 해주고, 가해자
쪽 아버지가 전화해서 합의를 해달라고 해서 합의는 없다고
대답했지만 전남편이 합의하는 자리에 저를 데리고 싸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합의서였던 거예요. 합의금도 저한테 오지
않았어요.

그 때 검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합의를 했냐고, 지금 싸인 한테가
합의서라고 검찰이 말해줬어요.

비감염인이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감염인되고 나니까 저는 너무 큰 차이를 느껴요.

쑹이: 내 얘기가 너무 길었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소주: 아니야 너무 값진 이야기야. 근데 누나가 힘들까봐 계속

염려되가지고 나는..

쑹이: 이런 일이 어제나 한 달 전에 일어났으면 얘기 못 꺼냈죠. 한참
지났으니까. 무더질 때도 됐으니까....

소주: 그저 HIV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태도가 바뀌고, 빛이 더
중요한지 모르고, 정의를 배반하고 그랬네요...

쑹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정리가 안돼요.

소주: 그냥 막 얘기해도 돼요. 생각나는 대로..

쑹이: 더 얘기를 못하겠어, 더 이상은.. 폭력도 많이 당해가지고,
갑자기 토할 것 같아.

소주: 그럼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자.

5) 알의 멤버이신데, 게이(남성)들이 많은 커뮤니티 속에서 여성으로서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소주: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쑹이: 오히려 편했어요. 나를 성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쑹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니까 그래서 너무 좋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거고. 오히려 처음에 나가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게이들이 여자를 기피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나가기가 두려웠었는데. 막상 나가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운거예요. 불편할게 뭐가 있어요. 사람인데. 알려지 때문에 동물은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이잖아요(웃음). 나한테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6)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소주: 드디어 사랑얘기네요.

쑹이: 이제 행복한 얘기 나오네. 제일 길게 얘기할거예요.

소주: 처음부터 감염 사실을 얘기하고 만났나요?

쑹이: 네. 사귀기 전부터. 전화로 수다 떨다가 얘기했어요. 얘기하니까 현 남자친구가 그때당시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찾아보더라고요. 생소하니까.

소주: 지금 너무 잘 만나고 계시잖아요?

쑹이: 네

소주: 감염여부가 만나는데 장벽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쑹이: 이 얘기를 먼저 해야겠다. 당연히 셰이프섹스를 하지만 오빠한테 검사해보자는 말을 하고 싶은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빠가 “나 병원가서 검사하고 왔어. 아니래. 나 착하지?” 라고 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소주: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해봐요.

쑹이: 남자친구한테는 항상 고마운 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HIV 감염인걸 알면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나로서는 미안한데, 건강한 상태로 만났으면 좋았을걸.. 그런데 오빠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음식도 잘 챙겨주고. 면역력에 좋다는 정보는 다 적어가지고 “이런 게 좋데~” “이런 운동 한번 해보자~” “이거 되게 좋다는데 먹으러가자” 하고. 제가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너무 고마워요.

소주: 깨가 쏟아지네

쑹이: 줄여서 말한거예요 더 자랑할 수 있는데(웃음)

소주: 깨가 넘칠 뻔 했구나(웃음)

소주: 형님은 HIV/AIDS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이 원래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누나를 만나서 없어진 건지 궁금해요.

쑹이: 저를 만나고 나서 HIV에 대해서 찾아보고 해서 그런게 없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7) 최근 에이즈가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오르기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소주: 최근에 참 난리가 났었죠.

쑹이: 댓글을 다 봤어요.

소주: 정신건강에 안 좋은데 댓글들..

쑹이: 어쨌든 나쁜 내용들이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 중에 단 한명이라도 좋은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댓글을 다 봐요.

소주: 나는 댓글을 아예 안봐서 모르겠네. 있었어요?

쑹이: 네. 있었어요. 그 사람 지적장애였잖아요. 나쁜 댓글들은 다... (그 사람을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좋은 글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지적장애를 가지고 사는 삶만으로도 힘들 텐데, HIV가지고도 또 힘들 건데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으면 그렇게라도 벌어서 살려고 했겠느냐 그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다.” 세금가지고 나쁜 얘기하는 댓글에도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그 댓글 단 분이.

소주: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랐을 때 든 생각은?

쑹이: 또 한 건 터지겠네. 사람들이 얼마나 우려먹을까. HIV는 약만
먹으면 비감염인들이랑 똑같이 살 수 있어요. 평생 관리해야하는
다른 만성질환들도 많아요. 다른 병은 죽는 병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HIV가지고는 왜 이렇게 물고 뜯고 공격을 하는지...

소주: 지긋지긋하다는 생각도 드나요?

쑹이: 지긋지긋만 하겠어요? 얼마나 기사거리를 쓸게 없으면 이렇게
쓰는지. 만약에 쓸거면 제대로 알고 쓰던가. 그럼 이해를 하겠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써대니,
사람들은 기사만 보고 판단을 하는데. (한숨)

8) 같은 감염인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쑹이: 제가 몇 명 만났었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는
남자들한테 마음을 못 열겠다는 거예요.

남성분들이 있는 자리에 가기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여성분들이 감염이 된 경로가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감염시킨 그 남자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똑같지 않아요. 그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안돼요.
바른 마음가짐을 함께 가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소주: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여성감염인)에게는 특별히 하고 싶은 말 없을까?

쑹이: 이 글을 보시고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본인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소주: 어쩌면, 지금 당장에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세요.

쑹이: 내가 지금 힘들어죽겠는데 누가 누구한테 응원을 해(웃음)

9) 비감염인 대중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쑹이: 악담해도 돼요?

소주: 원하시는대로

쑹이: 당신들은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질병가지고 그렇게
애기를 하나, 가까운 사람이 감염인이어도 똑같이 그렇게 할거냐고
우리를 그만 좀 공격했으면 좋겠다고.
우리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아요.
또 얘기해도 돼요? 할 얘기 되게 많거든요.

소주: 네

쑹이: 기자분들 기사 쓸 때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기사를 써가지고
사람들 혼란주지 말라고. 우리가 욕먹는 이유 중 하나가 당신들이
기사를 잘못 쓰는 것 때문이라고.

10) 쑹이에게 커뮤니티 알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쑹이: 예전에는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커뮤니티
알을 알게 되고나서는 같이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소주: 한마디로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쑹이: 쉽터. 내가 힘들 때에도,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의지가 되는 곳.

11)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쑹이: 우울증아 우리 이혼하자.

소주: 우울증이랑 결혼했어요?(웃음)

쑹이: 없나? 그래도 이혼하자.. 절교하자?(웃음)

커뮤니티 알이

활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스티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리

저스티나 파티에서 모인 기금의 일부를 故저스티넴의 유지에 따라 커뮤니티 알이 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기금을 사용하고 끝내는 것보다 우리의 활동을 돌아보며 왜 그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는지에 대해 남겨보자는 생각으로 부족하지만 몇 글자 적어보려고 한다.

처음 기금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저스티나 기금을 보여주기 식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우리가 지금 가장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던 도중 처음으로 떠오른 것은 2017퀴어문화축제였다. 어느 때 보다는 절실히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려는 지금,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했고 그것이 2017퀴어문화축제였다.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나누던 중 운영지기 한 명이 연애 중에 실제로 들었던 ‘형은 좋은데 병은 무서워’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진행했던 교육에서 우스개 소리로 나왔던 ‘니가 뭘데 날 거부해?’라는 말을 이번 부스의 슬로건으로 정하고 관련된 물품을 만들자는 의견으로 좁혀졌다.

실제로 HIV감염인들의 연애 중 적지 않은 분이 ‘형은 좋은데 병은 무서워’와 같은 말을 듣거나 그러한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연애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감염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내재된 질병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사라지지 않는 의료차별과 진료거부의 문제를 ‘니가 뭘데 날 거부해?’라는 슬로건으로 풀어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일러스트와 정보가 적힌 엽서의 형태로 만들어 무료로 배포했다. 또한, PLWHA의 인권을 상징하는 레드리본을 퀴어문화축제에 맞춰 무지개 색을 넣어 만든 금속뱃지 또한, 당일 부스에서 일정금액의 후원금을 통해 배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레드리본에 대해 모르는 분이 많아 설명하는 시간이 더 길어 당황 했던 기억이 난다. (시끄러운 축제현장 속에서 레드리본 의미 설명하느라 고생한 운영지기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 밖에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팀에서 제작한 가이드북과 레드리본 타투스티커 등 HIV/AIDS관련 물품을 통해 HIV/AIDS에 대해 세상에 많이 알릴 수 있었다.

퀴어문화축제가 끝나고 우리는 바로 커뮤니티 알 내부를 위해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인권캠프기획에 들어갔다.

매년 하는 인권캠프 사업이지만 그 해의 이슈에 맞춰서 진행되는 강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문제였고 그동안 꾸준한 이슈는 있었으나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HIV/AIDS 등록에 대해 강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장애여성공감에서 활동하며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타리님을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2017퀴어문화축제 슬로건 중 하나였던 ‘니가 뭔데 날 거부해?’라는 주제로 자신이 거부당한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공감하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커뮤니티 회원들이 직접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자신이 거부당하는 상황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했다.(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도중에 공감이 가는 상황에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일까? 글을 적은 나는 당시에 울었다.)
위 프로그램을 토대로 진행한 결과 작년대비 참여인원은 적었으나 회원들의 만족도는 높고 즐거운 인권캠프가 될 수 있었다.
인권캠프가 끝나고 추석 시즌이 지나자 잠잠했던 HIV/AIDS 이슈가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산부인과를 찾은 한 HIV감염인 여성을 언론에서는 확증도 없이 성매매여성으로 둔갑시켰고, 용인과 부산에서는 성매매를 했다는 HIV감염인 여성에 대한 공격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기사 속에는 여성감염인이 어떤 경로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지 그 여성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이었는지 말하기보다는 여성은 금욕순결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다뤄질 뿐더러 앞뒤 안 가리고 더러운 존재, 사라져야 할 사회의 악, 격리되어야 하는 존재로 다뤄질 뿐이었다.
이러한 여성 HIV감염인의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청소년과 여성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슈를 다뤄보자는 취지 하에 퀴어문화축제에 함께했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HIV/AIDS인권팀과 함께 국내에선 거의 최초로 여성감염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그녀들의 이야기 - 여성감염인을 만나다’를 공동으로 기획하게 되었다.

여성 HIV감염인이 어째서 사회와 격리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나아가 사회와 격리된 그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여성 HIV감염인 당사자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있었다.

진행이 마무리 되어서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연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토론회였다.

<그녀들의 이야기 - 여성감염인을 만나다.>를 끝내자 바로 찾아온 것은 연이은 여러 단체의 송년회였다.

알 또한 매년 진행하는 송년회였지만 ‘올해에는 특별하게 진행해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다.

올해 알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이 어떤 연유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알을 운영해가면서 어려운 점과 좋았던 일을 회원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회원들의 생각을 듣고 질문을 답변하는 서로간의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회원분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지기들이 준비한 회원들에게 대한 감사카드와 선물을 나누고 회원들이 맛있는 음식과 함께 올해를 돌아보며 운영지기들과 회원들이 서로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우리가 준비한 5시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

(물론 그날 프로그램 이후에도 계속 술자리가 이어졌지만ㅎ)

오랜만에 본 회원들도 있었고 처음오신 회원분도 계셨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회원분들에겐 알이 필요하고 우리 또한 회원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2017년은 마무리가 되었고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커뮤니티 알이 그리고자 하는 전체적인 그림은 아직 밑바탕을 그리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앞으로 회원과의 소통, 세상과의 소통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방법 중 하나가 지금 이글이 올라간 R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커뮤니티 알이 활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스티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故저스티님의 후원으로 알이 보다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인권과

아예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커뮤니티 알 도약이벤트 행사스케치, '회동(會同)'

|
사월

“축하와 지지의 온기가 가득한”

이태원 언덕에 위치한 카페 더 링크에 여럿이 모였다. 커뮤니티 알의 도약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공간을 가득 채운 것은 비단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지지하는 온기 역시, 도란도란 모여, 공간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었다.

“새로운 출발”

커뮤니티 알은, 가려지고 가라앉았던 HIV/AIDS감염인의 목소리를 세상에 보다 더 깊고 넓게 알리며 소통하기 위한, 출발선상 앞에 서있다. 이전까지는 청소년·청년 HIV/AIDS감염인 간의 네트워킹 사업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HIV/AIDS감염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도 놓치지 않고 힘차게 해나갈 계획이다. 출발을 알리는 도약이벤트 당일, 현장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전하려한다.

“첫 만남을 되돌아보며”

장애여성공감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타리의 진행으로 소주, 소리, 상훈이 나와 알 지기들의 토크쇼가 시작됐다. 지기들에게 향한 첫 질문은 ‘어쩌다 알에 오게 되었는지’였다. 즉 알과의 첫 만남에 대한 질문이었다. 알의 지기이자 상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소주는 “2011년 아이캅에서 청소년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복지부장관의 위선적인 모습과

경찰의 폭력적인 모습을 봤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 날 상훈이형이 많이 울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을 왈칵 쏟아냈어요. 다들 참 많이 울었던 날이었는데 그 눈물방울들이 (HIV감염여부, 다양한 정체성에 관계없이) 다 똑같아 보였어요. 많은 이들이,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방울들을 보며 단체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라며 알의 시작을 고민하게 된 순간을 설명했다.

소리는 “저는 인권과 아예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알의 초기 지기들 중에 제 친구가 자조모임 겸 인권단체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입했죠. 처음에는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렵기도 했는데... 어쩌다보니 회원에서 지기까지 되었어요.”라며 알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삶을 돌아보며 인권을 마주한 이야기를 전했다.

상훈은 “집안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긴 침체기가 있었고 아이깍 이후 알 활동마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고민을 했죠. ‘인권활동을 계속 해야 하나?’ 아니면 어느 정도 추슬러졌으니 ‘그만둬야 하나?’ 이런 고민 중에 소주가 꼬드겨서 하게 된 거예요.(웃음) 처음엔 대여섯 명이 모여 어떻게 만들까 고민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차츰 사람이 없어지더니 소주랑 저 둘 뿐인 상황도 있었어요.”라며 주저했던 이전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알의 기초를 다진 시간들을 들려주었다.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가 엮여지며”

내 삶에 알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까지의 과정, 그래서 알이 첫 발을 떼기까지의 과정, 알이 6번의 봄을 맞이하기까지의 과정들 속 그이들의 눈물과 웃음이 그려졌다. 너무 속상해 울기만 하지는 않았을 터, 이들의 웃음이 궁금해지려는 찰나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다. ‘도약이벤트를 열 때까지의 시간들 중 행복을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요?’ 행복을 묻는

질문에 상훈은 2014년도 퀴어문화축제의 현장을 말했다.

“제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기까지 꼬박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대중들에게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2014년도 행성인 HIV/AIDS인권팀과 함께 부스를 운영했어요. 그때가 세상으로 나가는 가장 큰 발걸음이 아니었나 싶어요.”라고 이야기했다. 소리는 알의 회원이 된 후 처음 참여했던 인권캠프를 행복했던 순간으로 꼽았다.

“저녁에는 술을 많이 먹어서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웃음)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너 오늘 화장품 뭐 가지고 왔니, 꺼내봐라, 이거 좋니, 애인은 어머니’ 하는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HIV/AIDS 감염인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사람들끼리 모였지만, 감염인임을 떠나서 서로 친구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공감대가 HIV/AIDS 감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았고 행복했어요.” 행복했던 순간을 ‘만남’이라고 적은 소주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 누군가가 나와 만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고민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서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없게 만드는 사회. 그래서 만나는 매 순간마다 행복하고 고마워요.”라고 이야기했다.

알에 문을 두드리기까지 각각의 사연들은 알 수 없지만,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인연을 이어감에 고마움을 느끼고, 만남의 순간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지기들이었다. 비단 지기들만의 고마움과 행복은 아닐 것이다. 알에 소속된 모든 회원들 또한 서로가 함께 할 수 있고 일상의 사소함을 나눌 수 있음에 행복을 느낄 것이다. 이들의 만남이, 사소한 일상이 더 많이 이야기되기를 바라는 순간이었다.

“비/감염인의 간극을 넓혀가는 사회를 향해 균열을 내는 시작이
되기를”

비성소수자가 성소수자와 연대하는 것, 인권단체와 피해/생존자
자조모임과의 만남이 활발해지며 경계가 없어질 때 점차 운동이
확장되는 것처럼, 감염인 커뮤니티 내 비감염인의 존재와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자 타리는 “(어떤 사람들은) 소주는 감염인일까 비감염인일까
궁금했을 텐데, 굳이 묻지 않고 당사자로서 무언가를 하는 동료가 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꺼낸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었는데요.
HIV/AIDS 감염인 당사자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나와
계신 지기들은 어떤 면에서 이 운동의 당사자인지 듣고 싶어요.” 라며
지기들에게 질문을 건넸다. 이에 소주는 “그동안 제가 취한 방식은 제가
감염인인지 비감염인인지 이야기하지 말자. 누군가 묻는다면 하더라도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서요.

내가 알과 함께함이 중요하지 감염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HIV/AIDS 감염인 이슈는 저의 의제예요.” 라며 이전의 고민을 넘어
당사자로 정체화 하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주었다. 더불어 “그런데 고민이
없지는 않아요. 알 회원분들 중 가끔 저에게 고맙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백번 이해하고 어떤 말인지 알지만,
어쩔 때는 마치 ‘너는 감염인도 아닌데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고맙다는 말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당신과 나의 다름이, 내가 비감염인이라는 사실이 언어화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고맙다는 말 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활동가가 되고 싶어요.(웃음)”

소주의 이야기가 끝나자 함께 모인 이들 간에 HIV/AIDS 운동 당사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음이 느껴졌다. 고민을 이어받아
소리가 답했다.

“저는 ‘점(.)’이라고 적었어요. 감염인과 비감염인이라고 칭하는 명칭 자체가 구분 지으려하는 거잖아요. 현 상태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감염인에게 ‘당신은 앞으로 감염인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스스로가 문제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외치고, 사회적으로 풀어내려 하는 사람이 당사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전했다. 또한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활동을 비감염인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HIV/AIDS 감염인에게 비감염인이 두려운 대상일 수는 있겠죠. 감염시킬 수 있는 대상이라서 그렇고, ‘그이는 날 어떻게 생각할까?’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은 감염인만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건 비/감염인 모두에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이라고 적었어요. 그 두 점이 만나서 역사에 획을 그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것의 핵심은 감염인과 비감염인의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소리의 명량하고 선명한 대답에 플로어에 박수갈채가 넘쳤다. 당사자란 누구인가, 연대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의 깊이와 넓이는 앞으로도 깊어져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고민들이 모이고 모여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만남은 HIV/AIDS 감염인과 비감염인의 구분을 공고히 해나가는 차별의 벽을 향해 균열을 내고 있었다.

“변화의 흐름을 마주하며”

고민을 확장해나가며 알 내에서, 혹은 알을 만나고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건네졌다. 소주는 ‘노출’과 ‘드러냄’을 적으며 ‘알을 만들었던 초기에는 오늘과 같은 행사가 가능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음’을 고백했다. 또한 최근 들어 점차 회원들의 발걸음이 확장되어가고 있음이, 그러한 용기가 알 내에 흘러가고 있음이 큰 변화라고 짚었다. 또한 소리는 ‘나(본인)’라고 답했다.

“저 때문에 크게 변화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변한 거 같아요. 제가 알을 통해 변화했고, 알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고, 알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자리에서 당사자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변화 아닐까요?”

라며 답했다. 마지막으로 상훈은 ‘나이의 변화’에 대해 답했다. 알은 초기부터 10·20대가 가입할 수 있으며,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30대가 이 커뮤니티에 있어도 되는 걸까?’ 고민했으나 비청소년이 청소년 인권운동에 함께 하는 것처럼, 30대에도 청소년·청년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 사업에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생각이 변했다고 답했다.

“알, 도약을 위해 회동하다!”

여섯 둘을 맞이한 알에게 크고 작은 변화가 있듯이 그 시간을 함께해온 지기들도 변화하고 있었다. 물론 알의 발족이후 즐거운 변화만이 가득한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 사회 내에서 성소수자를 비롯하여 HIV/AIDS 감염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이 거세지고 있다. 촛불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오히려 촛불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다.

바야흐로 혐오의 시대다. 혐오와 차별의 시대를 마주한 알은 그에 굴하지 않고 도약을 선언했다. 앞으로 알은 여성 감염인의 네트워킹을 촘촘하게 만들어 내고, 감염인의 일상을 드러내는 구술 작업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HIV/AIDS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한국 사회에 더 넓고 깊게 던져지기를,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닿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회동(會同)은 여럿이 모여 하나가 되는 일, 혹은 일정한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한데 모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오늘 알의 도약을 위해

‘회동’한 이들, 혹은 멀리서 알을 응원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은 앞으로
알의 활동에 큰 뿌리가 될 것이다. 알의 뿌리가 땅 속 깊은 곳으로
뻗어나가기를, 혐오와 차별조차 깊은 뿌리의 힘으로 이겨내기를
바란다. 앞으로 알을 통해 곁에 있지만 보이지 않았던 그이들의 존재가,
목소리가, 삶이, ‘오롯이’ 이야기되고 만나지기를 소망해본다. 출발선상
앞에 놓여있던 발을 떼어본다. 도약은 이미 시작됐다. 함께 한 모든
이들과 오래오래 숨 고르며 달려가기를 바란다.

*이 글은 2018년 4월, 알의 도약이벤트 “R, Love you” 행사 후
작성된 후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밤하늘과 맥주를 좋아하는 ‘몰로’의 이야기

몰로

“어쩌라고! 난 여기 있는데!”

몰로는 사회적인 혐오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혐오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할 수 있을까 궁금했다. 혐오에 맞설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을 물어보니, 자신의 존재를 강조했다. 몰로는 아무리 사람들이 혐오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존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재차 강조하는 몰로의 말에서 강한 힘이 느껴졌다. 몰로의 말이 맞다. 어쩌라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하지만 몰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고 의연했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전 와르르 무너졌어요.”

HIV/AIDS는 이제 만성질환으로서 관리가 가능한 질병으로 설명된다. 사람들은 다른 만성질환, 가령 당뇨나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HIV감염사실을 알게 되면 무너지기 십상이다. 왜 HIV를 알게 되었을 때는 유독 무너지게 될까 이야기 나눴다. 몰로는 처음 HIV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삶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했다. 당시 HIV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했고, 사회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렇게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몰로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들 때문에 삶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고 얘기했다.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앞으로 뭘 하며 살까?’ 기쁜 생각을 하고 있던 몰로였는데, HIV감염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앞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리고 두려웠다고 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질까봐. 그래서 몰로는 HIV감염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렇게 몰로는 HIV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느끼게 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HIV감염인도 마찬가지다.

“나는.. 나쁜 사람인가?”

몰로는 술자리에서 들었던 말을 얘기해줬다. ‘아 에이즈 걸려!’ 농담으로. 그러니까, 장난으로 이런 얘기를 누군가 했다고 한다. 몰로에게 직접적으로 한 얘기도 아니고, 몰로가 HIV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지만, 몰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나 나쁜 건가?, 나, 나쁜 사람인가?’ 우리의 일상에는 이렇게 에이즈협오가 촘촘히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촘촘히 자리한 에이즈협오에 상처를 받는다.

“친구가 영영 울어줬어요. 오히려 제가 친구를 달래줬죠.”

몰로는 당시에 왜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너무 서러워서 많이 울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몰로는 혼자가 아니었다. 혼자가 아니었기에, 지지자가 있었기에, 몰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안정을 비교적 더 잘 되찾을 수 있었다고 얘기했다. 몰로는 길바닥에 앉아 운적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때에도 혼자가 아니었다. 친구가 있었다. 함께 울었다고 했다. 몰로는 서글프게 우는 친구를 오히려 자신이 달래줬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몰로는 친구의 존재가, 지지자의 존재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우리는 지지자가 필요하다. 지지자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 모든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어요. 한 줄, 한 단어 정도 있었던가?”
몰로는 HIV예방과 감염인 인권에 대해 교육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 성교육 시간에 성병 예방에 대한 것은 수많은 내용 중에 한 줄 정도였던 것 같다고 얘기했다. 우리는 왜 이 당연한 교육을 받지 못했을까? 우리는 원통하고 답답한 마음을 서로 나눴다. 몰로는 함께 살던 룸메이트가 있을 때 이런 걱정을 했다고 했다. ‘수건을 같이 써도 되나?’, ‘밥을 같이 먹어도 되나?’ 알면서도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수건을 같이 써도, 밥을 같이 먹어도, 일상생활을 같이 해도 전혀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확하고 올바른, 필요한 성교육이 부재한 지금의 현실, 꼭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거부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가 나온 얘기다. 몰로는 단지 HIV감염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거부당하고 거부당할까봐 사랑을 이어가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들을 얘기했다. 몰로는 연애를 할 때 항상 HIV감염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게 된다고 했다. ‘거부당하지는 않을까?’ 왜 HIV감염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사랑조차 하기가 어려운 걸까. 그런데 인터뷰가 진행된 다음 날, 몰로에게서 연락이 왔다.

“잘됐어요! 헤헤”

행복한 연락이었다. 몰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HIV감염사실을 알렸고, 상대방이 잘 받아들여 결과가 좋다고 했다. 몰로는 지금 너무 행복해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다. 사랑해서, 사랑받아서 행복해하는.

“HIV감염인이라는 정체성은 저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몰로는 자신을 단지 HIV감염인이라는 정체성만으로 설명하려하지 않았다. 몰로는 HIV감염인이라는 것이 자신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고 얘기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HIV/AIDS에 대해 편견 가득한 편협적인 이미지만을 떠올리곤 한다. ‘문란한 성생활’, ‘죽음’, ‘고통’, ‘아픔’ 이런 부정적 이미지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지 우리는 한참을 얘기했다. 몰로의 말처럼 HIV감염인들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저 HIV/AIDS감염인이라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몰로의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

“밤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푸르딩딩하게.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몰로에게 언제가 제일 행복한지 물었다. 몰로는 이렇게 답했다. ‘집에 가다가 목이 말라서 편의점에 가, 맥주하나 사가지고 집 앞 조용한 계단에 앉아 밤하늘을 봤는데, 푸른 밤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푸르딩딩하게.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혐오 하는 사람들은 알까? 우리가 예쁜 밤하늘에 감동받는, 평범한, 아니 어쩌면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무도 없는

넓은 공터에서,

홀로 엉엉

울면서

'나쵸'와 '칠리'의 평범한 사랑이야기

나쵸 & 칠리

햇살이 유독 뜨거운 날, HIV감염인인 칠리와 함께 칠리의 연인 나쵸를 만났다. 나쵸는 칠리가 HIV감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비감염인 연인이다. 나쵸와 칠리, 이 사랑스러운 커플은 인터뷰가 진행되는 내내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행복이 가득 느껴졌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들의 눈빛만 봐도 물씬 느껴졌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쁜 커플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에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어요.”

나쵸에게 칠리와의 첫 만남에 대해 물었을 때, 나쵸는 칠리의 첫인상을 상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어떤 만남이었길래 충격과 공포라고 말하는 것인지, 긴장하며 듣고 있는 내게 나쵸가 말했다. “듣도 보도 못한 패션에 깜짝 놀랐어요. 충격과 공포였죠.”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 때 그 옷, 그대로 입고오라고 한 적이 있는데 버렸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어딘가 집에 아직 남아있겠지. (웃음)” 칠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정말 버렸어.”라며 씩씩하게 웃었다. 그리고 황급히 화제를 전환했다. 칠리는 나쵸의 첫인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푸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첫인상이 조금 독특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정말 평범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커플이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고,

남들처럼 데이트를 즐기는. 나는 조심스럽게 칠리가 HIV감염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했다.

“평소에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초는 명확하게, 살짝 가우뚱하며 선명히 말했다. “평소에 별로 생각이 안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나초는 칠리가 HIV감염인인 것을 알고 산다고 얘기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딱히 기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저 가끔씩 여행을 갈 때에 약을 챙겨왔는지 묻는 정도라며 이렇게 얘기했다. “HIV가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은 저는 애(칠리)가 좋은 거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사실 나초도 처음 칠리의 감염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많이 울었다고 했다. 그리고 많이 두려웠다고 했다. “많이 울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눈물을 엄청 흘렸죠.” 지금은 칠리가 HIV감염인이라는 것에 대해 잘 생각도 하지 않는 나초도 칠리가 HIV감염사실을 말했던 당시 처음에는 엄청 놀랐다고 얘기했다. 칠리가 당장 어떻게 될 것 같고, 칠리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야 하는 줄 알고 엄청 울었다고 했다. 곧이어 나초가 말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 그런가보다’ 했어요.” 칠리가 올바른,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서 별로 신경을 안쓰게 됐다고 얘기했다. 나초도 처음에는 HIV에 대해, 걸리면 죽거나 크게 아프게 되는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HIV가 관리가 되며, 관리를 꾸준히 잘하면 전파되지 않는다는 등의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고 얘기했다. “평균수명도 비감염인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웃음)”

“날 차고 싶으면 차도 돼”

칠리가 나초에게 HIV감염사실을 얘기할 때 한 말이라고 한다. “날 차고 싶으면 차도 돼...” 칠리가 당시를 설명하고 있던 도중 나초가 칠리의 얘기를 듣다가 말했다. “그 말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칠리는 그 당시 오랜 망설임 끝에 휴대전화 넘어로, 아무도 없는 넓은 공터에서, 홀로 영영 울면서, HIV감염사실을 얘기했다고 했다. “무서웠고...” 그 당시를 회상하며 칠리는 아주 무서웠다고 얘기했다. 칠리 역시, 아주 많이 울었다고 했다. 나초가 울었던 것처럼. 나초도 칠리도 모두 슬피 울었던 과거.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나초와 칠리 커플은 ‘이제 별 것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엄청 울었던 그 과거를 회상했다.

“저도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칠리는 나초에게 HIV감염사실을 얘기할 때, 잘 못 알아 들을까봐 ‘에이즈’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HIV, 감염인이라고 하면 보통 못 알아 들으니까...” 칠리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다. 스스로. 그리고 나초에게 열심히 알려주었다고 했다. HIV가 뭔지, HIV와 AIDS(에이즈)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관리가 가능한지 등등. 우리는 인터뷰를 진행하며, 사람들에게, 그리고 과거의 우리에게, HIV/AIDS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얘기 나눴다. 나초는 HIV/AIDS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 정부와 국가가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초는 많은 사람들이 무지로 인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며 자신도 처음에는 무서웠다고 얘기했다. “저도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지금은 뭐, (웃음)”

“HIV감염인인지 비감염인인지 그게 중요한가?”

우리는 서로 맞장구를 치며 얘기했다. "사랑하는데 HIV감염여부가 중요한가?" 사실 나초와 칠리도 과거에는 HIV 감염사실 때문에 헤어짐을 상상했던 커플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한다. HIV가 사랑을 못 할, 혹은 사랑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인 얘기도 나왔다. "사실 (HIV감염사실이)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랑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우리 모두 씩씩함을 감출 수 없었다. "(HIV감염인들이 연애에 있어서) 거부를 많이 당하니까 중요한 지점으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지... "

“몰라서 그래”

살짝 우울해진 대화가 이어질 때 나초가 분위기를 전환시켰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나초는 무지로 인한 두려움을 다시 강조했다. 비난 연애, 사랑의 문제 뿐 아니라 이 사회의 혐오와 낙인에 대해서도 나초는 ‘무지’ 때문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HIV감염인들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모르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공부까지가 아니어도, 조금만이라도 더 알아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직도 올바르게 정확한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는 이 사회의 현실에 대해, 그리고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었다.

“사랑한다는 말... ”

커플을 인터뷰 하는 만큼, 특별히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나초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은 한 가족 같아요. (칠리가) 마음에 이미 스며들어서.. 파내기가 쉽지 않죠.” 칠리는 행복한 표정이 역력했다. 사랑스러운 두 커플의 분위기를 참지 못하고 나는 또 언제가 가장 행복한지 물었다. 나초는 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만나서 이려고만(같이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 지는 느낌…”
가만히 듣고 있던 칠리도 입을 열었다. “다 좋죠. 마음이 넓어요.
이해심이 많고.” 그리고 잠시 후에 나지막이 덧붙였다. “사랑한다는 말…
. (을 하고 싶어요)”

너무 열심히

안살아도

괜찮을 것

같고.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민혁 & 진호

독특하게도,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민혁과 진호 커플을 만났다. ‘고맙다’는 그 좋은 말을 왜 금지어로 정했을까?

“해서는 안되는 말, ‘고맙다’는 말”

민혁은 진지하게 얘기를 꺼냈다. ‘사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사귀지 못할 것 같고...’ 민혁은 사귀기 전에 자신이 HIV감염인이기 때문에 두렵고, 미안하고, 고마웠던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다. ‘나랑 왜 사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고맙다는 마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깊어졌다. 민혁은 진호에게 정말 고마워해야 하는 걸까? HIV감염인이 비감염인을 만날 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걸까? 당연한 것일까? 의문을 품기 시작한 나의 복잡한 생각과 속상함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민혁은 곧이어 이렇게 말하며 정리해주었다. ‘하지만 그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실 마음은 정말 많이 고마운 데,, 우리는 평등한 관계니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민혁의 얘기를 찬찬히 들으며 공감했다. 조금은 복잡하고 많이 속상했던 나의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민혁의 연인 진호는 민혁의 말에 가벼운 깃털을 엮듯이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똑같은 사람인거죠.’ 진호는 민혁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맞아, 똑같은 사람인데, 왜 고마워해야해?’
HIV감염여부 때문에 (심지어 연인관계에서도) 생길 수 있는 기울어진
고마움, 혹은 미안한 마음, 어쩌면 두려운 감정까지도 민혁과 진호
커플은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고마워해야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민혁과 진호는 강조했다. 당연한 말인데, 난
왜 그 순간 이 커플을 존경스러워 했을까. 나는 생각을 잠시 접고 다시
찬찬히 이 커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알려지는 건 무서워요”

민혁은 HIV감염사실을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평상시에도 아주
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편이라는 민혁이 말했다. ‘죽는 병도 아니고..
무서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민혁도 두려운 것은 있다고 했다. ‘내가 HIV감염인이라는 사실은
두렵지 않지만, (HIV감염사실이) 알려지는 건 무서워요. 공포감이
들어요. (무지한 사람들의) 시선은 두려운 거죠.’ HIV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본인의 감염사실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에이즈혈액을
일삼거나 무지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HIV감염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두렵다고 얘기했다. ‘일상생활을 함께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혹시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싫어하고 그럴까봐...’

“나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어.”

옆에서 듣고 있던 진호가 얘기했다. ‘나도 사실 예전에는 그런 (HIV/
AIDS에 관한) 정보들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그리고 곧바로
덧붙였다. ‘사회의 에이즈혈액이 너무 심하니까.. 사실 나도 그 혐오에서
자유롭지 못했어.’ 지금은 HIV감염여부와 상관없이 민혁을 사랑하는

진호이지만, 예전에는 에이즈를 혐오하는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한다.

어떻게 과거와 달라질 수 있었는지, 진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람이 일상에 녹아든다는 것”

진호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실, 사랑의 힘으로, 낭만적으로 극복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호는 HIV감염인인 민혁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삶으로 녹아든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다. 진호는 본인이 그렇게 짧은 시간 사이에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딱히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대단한 뭔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지냈을 뿐이에요. 가끔 약을 먹었냐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진호는 그냥 같이 지내면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HIV감염인이 비감염인과 다르지 않게 이 세상에 더불어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호는 그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다. ‘우리는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해요. 너도나도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민혁이 HIV감염사실을 얘기했을 때 감정이 어땠는지 진호에게 물었다. 진호는 이렇게 답했다.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나를 이렇게 믿고 있구나. 신뢰해주는 구나.’ 듣고 있던 민혁이 웃으며 덧붙였다. ‘내가 말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말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민혁은 진호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싱글벙글했다. 나는 다시, 진호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HIV감염여부가 민혁을 사랑하는 데 걸림돌이 된 적은 없나요?’

“HIV감염여부는 결국,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사귀는 것에 대해서는 망설였어요. 가슴이, 마음이..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요.’ 진호도 처음에는 망설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민혁이 얼마나 마음이 넓고 멋진 사람인지 느껴졌을 때, HIV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언젠가, (민혁의 HIV감염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HIV/AIDS를 언급하며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했는데, 민혁은 그 사람을 오히려 안아주었어요.’ 진호는 그 때, 민혁의 넓은 마음을 본 순간, HIV로 인해 고민하고 망설였던 것들이 단칼에 사라졌다고 얘기했다. ‘민혁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령 HIV감염인이라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거죠.’ 진호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하던 말을 계속 이어갔다. ‘너무 감동받아서,, 이 사람이라면 정말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믿고 만나도 되겠다고.’

“사람을 특정 짓는다?”

진호는 민혁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람은 특정 지을 수 없어요. 그게 민혁이를 만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거예요.’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물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집단에 대해서 편견으로 낙인을 가하고, 딱지를 부과하고, 사실 그런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 짓은 불가능해야 해요. 사람은 특정 지을 수 없어요.’ 진호는 그렇게 말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사랑표현을 했다. ‘저는 민혁이가 민혁이어서 좋은 거예요. HIV감염여부와 상관없이, 민혁이니까, 민혁이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같이 잘 살자”

민혁이 얘기를 할 때면 진호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진호가 얘기를 할 때에도 민혁이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내내 민혁과 진호는 아옹다옹 옥신각신 다투는 듯이 서로에게 사랑을 말했다. 나는 사랑스러운 두 사람의 분위기가 깨지지 않는까 걱정하며 민혁에게 인터뷰의 마무리를 위한 질문을 했다. 비감염인과의 만남을 어려워하는 감염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솔직한 마음으로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지만 함부로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힘들지 않게.. 그런 (차별과 낙인이 없는) 사회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딱히 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잘 버텼으면, 잘 살아냈으면, 꾸준히 잘 버티고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열심히 안살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같이 잘 살자는 말을 하고 싶어요.’

**어디에서든
서로
교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큰 항문섹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PL과 MSM의 새로운 관계맺기

버섯

0.

2014년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에 발표했던 「외로움의 조건」이라는 글은 도입부의 경험만을 잘라내 “[힘]에이즈에 걸린 게이가 쓴 수기”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 오늘 발표하는 이 글 역시 마찬가지로 오해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그것이였다. 일부 사람들은 어째서 누군가가 ‘문란한’ 섹스를 했다고 하면 마땅히 에이즈에 걸렸으리라, 걸리리라 생각하는 걸까?

나는 2018년 11월부터 프렙 시범사업에 참여해 에이즈 치료제이자 예방약으로 사용되는 트루바다를 복용하고 있다. 프렙 시범사업은 HIV 항원항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만 참여할 수 있다. 즉, 나는 ‘아직’ 감염인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두 가지다. 첫째, 사람들이 가지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합리적이라면 나는 이미 감염인이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아닐까. 둘째, 누군가를 HIV감염인이라 여겨 그를 혐오하고 두려워했을 때, 그가 감염인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분노와 혐오는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

다만 이번 글의 독자는 MSM으로 한정하려 한다. 게이기가 아닌 MSM이라는 용어를 택한 이유는, 성정체성과 상관없이 남성과

섹스하는 남성이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MSM 중에서도 노콘섹스를 좋아하는 남성, 그리고 노콘섹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MSM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우리가 타인과 성접촉을 하는 한, 어디에서든 서로 교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

나는 노콘섹스를 좋아하고 일대일 관계가 아닌 익명의 사람들과 가지는 그룹섹스, 바텀 한 명에 여러 명의 탑이 섹스하는 것을 좋아한다. 정확히는 그러한 행동을 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건강 상태나 행위에 대해 굳이 묻거나 따지지 않는 관계가 편하다. 나는 내 행동이 나에게 성병 감염의 가능성, 나아가 다른 문제를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PL이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과신하고 있었을까? 그보다는 굳이 HIV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그들의 상태에 보다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

2.

내가 성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본격적으로 게이들을 만난 것은 전역한 이후였다. 하지만 커뮤니티로 진입하진 못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엔 돈이 들었고 나는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만원으로 주말을 보내야 할 때,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상대가 부담하고 싶어할 만큼 잘생기거나 잘나지 않은 사람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몇 안 됐다.

ㄱ. 술병가에 가서 1차 비용을 내고 집에 온다.

ㄴ. 원샷바에 가서 혼자 칵테일 한잔을 마신다.

- ㄷ. DVD방 입장료 오천원을 내고 들어가 실컷 섹스한 뒤 나와서 남은 오천원으로 햄버거 세트를 사먹는다.
- ㄹ. 밤에 휴게텔 입장료 만원을 내고 들어가 다음날 오전까지 실컷 섹스한다.
- ㅁ. 비용이 들지 않는 크루징 장소를 찾아가 모르는 사람들이랑 섹스한다.
- ㅂ. 병개를 잡아서 커피만 마시고 헤어진다.

아마 나에게 다음 단계를 부담할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면 만나는 사람들도, 만남의 형식도 많이 달랐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최소 비용으로 만족을 추구하려면 휴게텔과 DVD방에 가는 것이 최선이었고 나는 그걸 좋아했다.

3.

이미 구축되어 있는 구성원 간의 친밀함,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외모 자원에 따른 힘의 차이는 나로 하여금 내가 어울리는 곳은 게이 커뮤니티가 아니라 상대방이 누군지 신경쓰지도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 익명의 섹스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하룻밤에도 열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과 노곤 섹스를 하는 내 삶은 커뮤니티 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계몽하거나 바뀌어야 할 행동양식으로 취급되었다. 간혹 DVD방이나 휴게텔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해도 다른 사람들이 둘이 어떻게 만났느냐고 묻는다면 ‘어플’로 만났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았고 휴게텔에 다니는 것을 비밀로 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섹스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들과도 겹쳐지고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았다. 보다 정확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보다 섹시하고, 식이 되는 사람이 섹스

이야기를 해야 재미있고 매력적이지 그런 이야기를 식이 안 되고, 자고 싶지 않은 게이가 한다면 그는 그 자체로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

4.

나는 콘돔을 언제부터 안 썼을까? 나는 거의 탐을 했었는데(바팀을 할 때에도) 콘돔을 사용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콘돔 없이 바팀 안에 싸는 기분이 더 좋았고, 내 항문에서 새어나와 흘러내리는 정액의 느낌이 좋았다. 굳이 콘돔을 쓴다면 바팀이 센조이를 하지 않았을 때 말고는 없었다. 콘돔을 요구하는 상대와는 애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한 상대와 주로 애널을 했다. 이때 노콘을 요구하거나 허락하는 사람과 콘돔을 꼭 착용해야만 삽입을 허락하는 사람은 나에게 차이가 있었다. 내 상대는 주로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연상 바팀들이었는데 그들은 내가 콘돔을 사용할까 염려하는 듯 나보다 서둘러 노콘으로 자지를 삽입했고 나는 그것이 좋았다.

노콘으로 섹스를 했기 때문에 성병도 자주 걸렸다. 성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다.

나는 노콘 섹스를 너무나 좋아했고 지난 십여 년간 게이들과 섹스를 하면서 나만큼이나 노콘을 좋아하는 게이들이 적어도 한국에는 삼백만 명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들은 없는 사람 취급당한다.) 콘돔 없이 섹스하면서는 똥이 묻을까봐 염려했지 에이즈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에이즈의 위험에 대해 무지했던 것은 아니었다. 십대 시절 나 자신을 이해하려 도서관에서 뒤적었던 동성애자들의 이야기에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여러 이유로(아마도 사회 분위기가 지닌 동성 항문성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낙인에서 받은 영향을 포함해서) 나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 불안정한 감정 상태는 HIV 감염 가능성보다

더 우선하는 충동이 있다고 믿게 했다.

노콘을 허락하는 사람은 최소한 콘돔을 고집하는 사람보다 나의 감정 상태와 더 가깝다고 믿었고 실제로도 그랬다. 콘돔을 고집하며 자신에게 발생할 여러 가능성들을 차단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사람은 미래를 계획하거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고 내가 만난 노콘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살 만큼 살아서' 별로 겁나는 것이 없거나 상관없다고 여기는 쪽이었다. 그들이 감염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최소한 꺾방에서 만났던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콘돔을 착용할 것을 나에게 요구했다. 나는 감염되어도 상관없어요, 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뒤늦게 깨달은 사실은 그들은 자신이 감염될까봐 염려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통해 내가 감염될까봐 우려했다는 점이였다. 그제야 나는 콘돔 착용을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사람도 있지만 그와 달리 이미 자신이 감염인이기에 콘돔 착용을 요구했다는 것도 짐작하게 되었다.

5.

이번 시간에 U=U, PrEP을 비롯해 HIV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야 할까? 자신이 HIV에 대해 무지하다는 이유로 감염인을 모욕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일부 사람들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감염인이 누구인지 찾아내고 그들을 욕하고 배척하면 안전해지리라는 착각을 하나본데 그렇게 극성스럽게 감염인을 차별하고 낙인찍을수록 감염 사실을 서로에게 숨기게 되어 결국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된다. 더 나아가 감염인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마땅하다 여기게 하여 그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해도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없게 만든다. 누군가를 탈락시키고 사회의 안전망 밖으로 밀어내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

평생 성접촉 없이 살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일대일 관계든 아니든 누구나 감염 가능성에 노출된다. 특히나 일대일 관계는 문란하지 않다, 일대일 병개는 괜찮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은 일대일이었어도 상대방도 그랬을까? 상대방이 이미 수십 차례 하고 다녔다면 자신도 그와 섹스함으로써 같은 수준의 위험을 공유한 것이다. 우리는 누구와 섹스하든 나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은 감염인을 낙인찍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그가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짜증나는 것은 자신이 '비감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뭐라도 된 듯 PL을 타깃으로 삼고 공격하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취약성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이해는 전무한 무례하고 무식한 인간들이 쏟아내는 공격과 비과학적인 막말을 보고 있으면 이들이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여기게 된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비감염인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은 2018년 동인천에서 열린 퀴어퍼레이드에서 행진 행렬을 가로막고 몇 시간째 바닥에 앉아 통성기도하며 혐오발언을 쏟아내던 개독 세력과 하등 다들 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극적인 변화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달라진 인권감수성과 발전한 과학적 사실 앞에 무지에서 비롯된 혐오를 전시하는 이들은 빠르게 도태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들을 위해 너그럽게 충고하자면 지금이라도 U=U가 무엇인지 HIV가 무엇인지 공부해야 할 것이다.

6.

HIV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PL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였다. 그는 약을 먹지도 않았고 병원에 다니지도 않았다. 그는 에이즈에 대한 높은 수준의 낙인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미래를 계획할 의지를 빼앗았으며 함부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내가 공부하고 알게 된 에이즈는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질병이었다. HIV에 감염되었어도 치료받고 약을 꾸준히 먹으면 타인에게 전파할 우려도 없이 비감염인과 다름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문제는 HIV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부정확한 편견으로 지레 삶을 포기하는 행위였다. 이러한 오해와 편견은 사회 전반에 퍼져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결합해 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정당화하며 이를 개선할 긍정적인 분노를 끌어낼 수 없게 만든다(상대방이 PL이고 아니고가 중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 살아보고 싶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물론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무례하고 어리석게는... 살고 싶지 않다.).

나는 HIV 페티시라고 생각할 정도로 PL이 좋고 PL과 섹스하고 싶고 PL의 정액을 먹고 싶어하고 PL의 안에 노콘으로 싸거나 노콘으로 받고 싶어하는데 왜 그럴까? 비감염인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꼬워서 그렇다. 뭐가 잘나서? 몸에 HI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누군가와 연애할 때 그가 몸에 HIV를 가지고 있다 아니다 보다 더 짜증나는 문제는 존재한다.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사랑하지 않게 되는 계기는 더욱 복잡하다.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핑계를 상대방이 감염인이어서라고 쉽사리 떠넘길 수 있다면, 과연 그 감정이 사랑이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구를 알아가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PL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한계와 조건들을 결정한다고 믿게 하기도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좀더 살아보면, 인간이라면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충동을 몇 가지쯤은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안고서 뒤통거리며 살아가는 법임을 깨닫게 되지 않는가.

7.

노콘섹스와 다수의 사람들과의 성접촉을 선호하는 내가 십여 년간 이 바닥에서 체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노콘섹스에 대한 욕망이 있는, 안전하지 않은 섹스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프랩이나 U=U가 퍼지기 전에도 그랬다. 에이즈가 불치의 질병이고 죽음의 병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에도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일까? 누군가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왜일까?

그것은 단순히 노콘에 대한 선호만으로 설명하긴 힘들 것이다. 나는 문제에 다가가는 열쇠로 게이들이 처한 조건과 상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섹스를 서로가 원하는 매력을 교환하는 거래관계로 만드는 어플 문화, 거기에서 자원이 부족한 사람이 섹스를 성사시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조건들엔 무엇이 있을까? 노콘을 허락하는 사람과 콘돔을 고집하는 사람 사이에 있는 힘의 격차.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관계 맺는 문법을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성정체성과 항문성교를 불법화하여 낙인찍는 국가와 그것이 재생산해내는 사회의 차별과 억압이 주는 스트레스.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성소수자로서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는 불안과 언론과 혐오세력들로부터 끊임없이 불려나가 모욕당해야 하는 불쾌감들이 표출되는 한 방식이라는 생각 등 복잡한 조건들이 서로 얽혀 있다.

성에 대해 쉬쉬하는 태도는 질병을 질병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도덕적 가치판단의 대상으로 취급하게 만든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윤리와 도덕이 개입해 특정 질병을 그릇된 행동의 결과로, 일탈 행위의 마땅한 벌로 여기게끔 만든다. 어떤 행동이나 존재방식은 그릇된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금지당한다. HIV 감염 및 성병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방법들을 배우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을 보호하는 대신 무조건적인 금지를 통해 정체성과 성행동을 비난의 대상으로 만든다. 어리석은 일이다. 어떠한 욕구도 그것을 단숨에 끊어내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왜 이 사람이 이러한 감정과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자기 인식은 어떤지, 자신이 반복하는 행동과 상황에서 위험한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삶을 기획하기 위해선 어떤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지 이해가 필요하다.

8.

하지만 위의 조건들을 배제하고 순전히 흥분과 만족감 때문에 노콘섹스를 택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떨까? 내 관심사는 이것이었다. 나는 콘돔을 사용한 섹스가 싫다. 나는 노콘섹스가 좋다. 나는 노콘섹스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성병의 종류와 위험과 그 대처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상대방 역시 그러길 바란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콘섹스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내린 결론이다.

- ㄱ.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으며 꾸준히 치료제를 복용해 바이러스가 억제된 상태의 감염인과 한다.
- ㄴ. 프레프를 복용한다.
- ㄷ. 감염인 인권을 증진시켜 그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하게 노콘섹스할 수 있게 일조한다.

르. 의학적 사실에 반하고 구시대적이며 예방에 도움 안 되는

전과매개행위금지 조항을 없애고 게이 커뮤니티에 프랩 접근성을
높이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는다.

현재 프랩은 시범사업으로 1년간 무상으로 약제와 검사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프랩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C형 간염을 비롯해
다른 성병을 예방해주지 못하지만 HIV 노출에 있어서는 복약법을
지키면 감염 가능성에서 안전하다.

서로 원한다면 부카케를 해도 되고, 노콘섹스를 해도 된다. 그것이
폭력이 아닌 서로 합의한 관계라면 말이다. 질병에 대해 불필요한 편견과
판단을 더할 필요가 없다. 즐거운 노콘섹스를 하자.

*이 글은 제11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안에 싸도 돼요?'

세션 발제문입니다.

*많은 사유가 가능한 이 글을 보다 많이 공유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R팀의 2019년 첫 게시글로 정하였습니다.

*글 게시를 허락해주신 버섯님께 감사드립니다.

HIV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평범하게 지내는 준우의 이야기

준우

준우씨는 평생 그것을 자신만 알고 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산에서 나고 자란 준우씨는 평범한 시스젠더 이성애자 남성이었습니다. 준우씨는 스스로도 자신을 평범한 남성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 할 때에는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사진과 여행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준우씨가 종종 자신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바로 같은 남성에게서 성적인 매력을 느낄 때 였습니다. 준우씨는 평생 그것을 자신만 알고 있기로 마음먹고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우씨는 가끔씩 몰래 남성들과의 만남을 가지곤 했는데, 여전히 자신은 헤테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일상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인 표현을 서슴지않고 말하기도 했죠.

다른 평범한 남성들처럼 준우씨도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또 평범한 남성들이 그러하듯, 준우씨도 군대에서 제대 후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곤 했는데, 여러가지 미래 중 준우씨의 눈에 가장 또렷하고 선명하게 그려지는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사관이었습니다. 그림속의 부사관은 준우씨에게 제복을 차려입은 멋진 모습과 자신이 바라던 생활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어떤 남성들로부터의 뜨거운 관심 또한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우씨는 꿈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부대안의 사람들도 그런 준우씨를 열심히 응원해 주었구요. 결국 준우씨는 시험에도 합격하고, 면접을 거쳐 신체검사만 하면 되는 단계까지 파죽지세였습니다. 준우씨가 진심으로 바라고, 노력했기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꿈과 행복에 부푼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런 말을 듣기 전 까지 말입니다.

준우씨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찢리는 듯 아팠습니다.

준우씨는 휴가때 뭔가 잘못이 있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군의관은 침착하게 준우씨에게 말해주었어요. 에이즈와 HIV는 어떤것인지, 또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또 치료하는 방법과 치료를 위해 어떤 병원에 가야하는지 말해주고,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천천히 알아 보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때면 정신과를 찾아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또 군의관은 준우씨에게 기회가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부모님께 직접 알릴 기회, 그것은 준우씨에게 달려있고, 우리는 알리지 않을것이라 했습니다. 준우씨는 그말을 듣고는 마음이 펴 좋았습니다. 나에게 기회가 있다니... 기회가 있다니... 안심하던 찰나, 다시 군의관은 침착하게 준우씨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전역 하셔야합니다.”

준우씨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찢리는 듯 아팠습니다.

HIV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두 달 간 전역을 기다리며, 준우씨는 군병원 1인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준우씨는 걸보기엔 너무 건강한 사람이었고, 왜 1인실을 쓰냐는 동기의 순진한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은

마치 유리로 만든 듯 했고, 준우씨는 모두가 자신을 쳐다 보고있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부모님을 만난 준우씨는 자신의 기회를
솔직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얼굴에 드러난 표정과는 다르게,
준우씨에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니다. 부모님이 돌아간 후,
군외관이 준우씨에게 와 물었습니다. 기회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준우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군외관도 말해주었습니다.
자신이 부모님께 잘 말해드렸다고... 잘못된 정보를 보시느니 의사인
내말을 믿으라 말했다고...

준우씨는 결국 찾아내었습니다.

전역 후, 준우씨는 군인이 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HIV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내뱉어진 수많은 말들은 준우씨를 저주했고 역겨워했습니다.
군외관 말대로, 정신과를 가야하나? 생각 했던 준우씨는 결국
찾아내었습니다. 친구사이(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성인(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키썩에이즈썩롱에 대해서요.
그러나 그들은 준우씨에게서 너무나 멀었습니다. 준우씨는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런 준우씨에게 서울은 유럽에 있는 도시와도
같았습니다. 굳이 내가 거기까지 가야하나? 생각하던 준우씨는 결국 또
찾아내었습니다.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을요.

모임에서, 준우씨는 자신과 닮아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의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전해지는 수많은
말들은 준우씨를 지지했고 연대감을 주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전엔
헤테로가 맞았나? 생각 했던 준우씨는 어느새 되어있었습니다.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의 대표가요. 그러자 준우씨의 눈에 가장

또렷하고 선명하게 그려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HIV였습니다.
준우씨도 처음에는 감염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부산에서 감염인의 의제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제가 부산에서 어느정도 자리잡고 나서야
준우씨는 본인이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부산에서의 감염인
의제는 더욱 활발히 이야기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거론된 U=U,
프랩에 관한 이야기까지 부산으로 가져왔죠.

나도 나오는것이 두려웠다.

대표에서 물러나, 다른 모습을 위해 서울로 온 준우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에, 나는 이것이나 혼자 겪는
문제인가 생각했다. 감염인이 가진 감정들. 아픔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어쩔거나 나는 아팠다) 이것들을 좀 풀어나가고 싶었다. 털어내고도
싶었다. 내가 왜 아플까? 혐오와 차별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니 이젠
나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었다. 성소수자를 비롯, 차별받는 이들 모두가
같이 겪고있는 문제였다.”

“이것은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아파 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
나도 나오는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주변사람들이 힘이 많이 되어주었다.
그렇게 시작해 부산에서 운동을 하며 다른 활동가, 단체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하다보니 점차 나아지더라. 또 서로 만나고
배우면서 단체 내부에서의 감염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몰랐으니까 가질
수 있는 혐오와 차별, 이런것도 개선되는게 보이더라.”

“감염 후 함께 일했던 형에게 감염 사실을 밝혔다. 달라지는건 없더라, 손절 당한 것도 없다. 나는 그게 이상했다. 생각했던 악몽은 다행히도 나의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더라. 주변에서 듣고 접한 혐오와는 너무 다른 현실이 이상했다. 연애를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 진짜 좋은 사람들은 내가 맘에 들면 크게 연연하지 않더라. 오히려 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 좋다.”

“서울엔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다. 즉흥적인 성격이라 그때그때 친구를 불러내는데 부를 친구가 없다.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는걸 다시 깨닫는다. 부산이랑은 다른 느낌이다. 근데 부산도 서울만큼이나 큰 도시다. 그런데도 감염인이나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열악하다면 다른 지방은 너무나 암담하지 않은가? 나는 나보다 다른 지방에 사는 감염인이나 차별받는 소수자는 어떨지 더 고민이다. 나는 커뮤니티가 중요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에라 모르겠다.

"계획은 없다. 지금이 좋다. 인권 활동도 접어두고 먹고살기 위해 서울로 왔다. 부산의 단체는 나 없이도 잘 운영되고있다. 예전엔 약먹는 일조차 부담스럽고 버거웠고, '일하며 치료를 받아 낼 수 있을까?', '병원엔 언제까지?', '안정적인 회사에서 일하는게 낫지않은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나니 '에라 모르겠다' 하게 되었다."

"하고 싶은거 하자. 약도 병원도 별거 아니었다. HIV/AIDS로 걱정하며 보내는 시간이 더 무섭다."

지금 준우씨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에이즈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나는 왜 HIV 감염인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 지는가?

김극렬

HIV 비감염인인 나에게 '에이즈'라는 질병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다가왔다. 분명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병인데, 막상 아는 대로 말해보라고 하면 '잘 모른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병. 내 삶을 돌이켜보면 에이즈에 대해 들은 적은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중학교 보건 수업의 성교육 시간에서, 굿즈를 사기위해 갔던 퀴어문화축제에서, 그리고 에이즈 관련 예술작품이나 영상에서 나는 분명히 에이즈라는 단어를 여러 번 들었다. 하지만 들은 만큼 병에 대해 알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더 나아가 HIV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보다도 더 모르고 있다고 느꼈다. 내가 처음 용기를 내어 커뮤니티 알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순전히 모른다는 생각에서 나온 사람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커뮤니티 알 측과 비대면 미팅을 하기로 약속한 날, 웬지 모르게 떨렸다. 내 삶의 반경에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느끼는 묘한 감정. 나는 그것을 미팅 직전까지 느끼며 참여했다. 내 앞의 화면 속에는 웃으며 나를 맞이하는 포니님이 있었고, 나는 수줍게 내 소개를 했다. 미팅을 하기 전엔 대화가 어색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걱정과 달리 대화를 시작하자 입에선 말이 술술 나왔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태도는 점점 조심스러워졌다. 이상한 점은 더 있었다. 아무렇지 않게 내뱉던 단어들을 신경 쓰며 말했고, 계속 헛웃음과 눈웃음을 지으며,

"제가 에이즈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실례가 될 것 같은데..."라는 말을
오조 오억 번 정도 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던 포니님은 나에게
웃어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더 실례하셔도 돼요."

대화를 하던 중 포니님은 나에게 비감염인들이 감염인들을 대할 때 유독
납작 엎드린 듯한 태도로 대하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 나는 그 말이 참
공감되었다. 나조차도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왜 HIV 감염인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지는가?

우선 에이즈라는 질병의 특수성이 한몫을 한다고 생각한다.
HIV의 감염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성관계로 인한
전파다.*('2018년 기준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 HIV 감염인의
98%는 성관계로 인해 감염되었다'라는 조사를 별도 첨부 표시로 남긴
뒤 밑에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혐오 세력들이 감염인에게
마음대로 사회적 낙인을 찍기 위한 근거가 되곤 한다. 낙인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은 소통에 있어서 자기 검열의 이유가 될 때가
있다. 감염인으로부터 이른바 힙밍아웃(HIV+커밍아웃)을 들을 때면
비감염인들은 바이러스와 병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나는 질문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말을 꺼내지 않았다.
분명히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나 이런 사고의 자기 검열은 상대에게 실례를 범하도록
하진 않지만 반대로 소통에 있어서 장애를 낳기도 한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오히려 진지한 대화를 방해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의 자기 검열이 심해질 경우, 질병에 관련한 모든 대화를 원천
차단하게 되기도 한다. 약을 어떻게 타오는지, 타인과의 관계는 어떤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무엇인지. 비감염인으로서 드는 궁금증들을

묻지 않게 된다.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듯이, 에이즈를 에이즈라 부르지 못하는 웃기고도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특히 감염인과 비감염인의 친밀도가 낮을수록 이런 증상은 더 심해진다. 내가 처음 포니님을 만나 이야기했을 때 발견되었던 이상한 증세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고의 자기 검열은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지나치게 예의 바르고 소극적이게 만들기도 한다.

이와는 다른 자기 검열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일상에서가 아닌 아닌 자의로 감염인을 만났을 때 자주 느껴지는 자기 검열이다. 위에서 말했듯 나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커뮤니티 알에 연락을 했고, 이것이 이어져 키썬 에이즈 찰롱에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찰롱이 끝나고 남은 시간에 나는 한 참가자에게 비감염인임에도 왜 에이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사실 질문을 받고 나서 꽤 깊은 생각에 빠졌다. 특수한 업무 목적이 아니거나, 업무 목적이라 하더라도 자의로 감염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들은 왜 이들과 만나려 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된다. 나는 그 과정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떠올렸다. '단순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사람을 만나는 건 실례가 아닐까?',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들을 불쌍하다고 여기며 이를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아닐까?'

이와 비슷한 생각을 장애인권에 대해 공부했던 나의 지인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비장애인이면서 왜 장애인권에 대해 연구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스스로에게 '나도 모르게 장애인을 '삶을 살아가기 힘든 소수자'로 인식하며 동정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다고 한다.

상대를 대하는 마음이 관심인지 동정인지 헷갈려 하는 일은 HIV

감염인 뿐만이 아닌 다른 소수자들을 만날 때도 일어난다. 나는 이럴 때면 관심과 동정이라는 양 극을 가진 스펙트럼 사이에 서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 대부분 동정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며 마무리되지만 질문 자체가 주는 파급력은 상당히 크다. 위에서 말한 자기 검열의 경우 보통 서로에 대한 친분이 쌓일수록 줄어든다. 하지만 이 동정의 스펙트럼 문제는 시간에 상관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미묘한 부분을 건드린다. 그래서 다른 감염인이나 소수자를 편히 대하다가도 행동에 있어서 주춤대게 만들곤 한다.

커뮤니티 알과 함께하며 나는 두 가지의 자기 검열을 모두 느꼈다. 그래서인지 대화를 많이 나누긴 했지만 진정으로 소통하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커뮤니티 알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느낀 건 생각 외로 감염인보다 비감염인들이 더 소통의 벽을 높게 쌓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만났던 알의 사람들은 나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고 계속해서 물었다. 직접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이야기해달라고 한다니. 포니님의 실례해도 괜찮다는 말은 그런 점에서 당황스럽기도 감사하기도 했다.

에이즈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비감염인과 감염인 사이에는 벽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벽은 의외로 투명한 상태로 존재한다. 내가 감염인들과 만났을 때 나는 그 벽을 느꼈다. 나는 이 글에서 그 벽을 함께 단숨에 부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오히려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벽은 쉽게 무너지기 힘들다. 하지만 그 벽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면 부수기는 훨씬 용이해진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비감염인라면 에이즈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예상하건대 당신은 내가 느낀 감정을 느끼고 있거나 느꼈지만 인식하지 못한 단계일 것이다. 만약 벽을 인지했다면 이제 부술 단계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계속 만나며 이야기해야 한다. 서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느낀 그대로를 말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꽤
아니 많이 비슷하다고 느낄 것이다. 언젠간 그런 솔직한 마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를 나는 나에게 빈다.

5만원

더 내시면

돼요

HIV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 생각보다 가까운 의료차별

상훈

한동안 섹스를 할 때는 탐만 했다. 내가 탐을 할 때는 콘돔 주도권이라든가 탐의 권력이라든가 자의를 좀 더 실천 할 수 있는 자유도라든가 그런 게 좀 더 있어서 콘돔은 꼭 사용해왔다. 얼마 전에 남자를 만났는데 취한 상태에서 섹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고민만 하다가 콘돔 없이 삽입을 당한 적이 있었고 내가 당시에 섹스에 크게 감흥이 없다는 것을 안건지 상대가 중간에 관계를 멈춘 적이 있었다. 평소에 성매개감염병에 대해 조금 예민한 편이라 이렇게 예방 없는 삽입은 너무 오랜만이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근에 샤워를 하기 전 항문 안쪽 손가락을 넣어 요리조리 만져보았다. 시간이 지나 뭉가가 만져지기 시작했고 경과를 두고 지켜보니 조금 더 커지기에 항문 콘딜로마 감염이 의심되어 병원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항문콘딜로마로 병원에 방문하면 제거수술 전에 100% HIV검사가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HIV감염인의 항문 콘딜로마는 큰 위기이다. 첫 번째로 항문 콘딜로마라고 하면 게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밝혀지고, 두 번째로 HIV감염인의 콘딜로마 제거수술 역시 수술이기 때문에 의료차별이나 거부를 너무나 쉽게 당하기 때문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비싸더라도 가다실부터 쳐 맞을 걸’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혹시 콘딜로마가 아닐 수도 있다는 빈약한 희망을 크게 부풀려 검사를 받아볼 각오를 했다. 그리고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항문 콘딜로마’를 검색을 하니 별의 별 정보가 다 나온다. 콘딜로마는 바이러스 질환이라 물리적 제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높여야한다는 한방병원. 내 면역수치는 현재 1200대라 웬만한 HIV비감염인보다 면역수치가 높은 편인데 발병했다. 항문 외 콘딜로마를 제거한다는 비뇨기과. 난 항문 안쪽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필요 없는 정보들을 추리해보면 세상에는 참 나와 먼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 같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년 전에 항문을 전문으로 본다는 송○병원은 HIV감염인의 의료거부를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여 고민만 하다가 가지 않았고 종각쪽에 있는 항문 전문 개인병원을 예약했다.

병원에 들어서니 문진표를 작성하라고 한다. 치질이나 탈장관련 문진을 지나 가려움이나 변 상태를 체크하는 항목이 나왔는데 어디에도 체크할 수 없었다. “후장에 손가락을 넣었는데 뭐가 만져졌어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수치스럽고 대충 가려운적이 있었다고 체크했다. 문진표를 작성하고 대기하면서 별의 별 생각을 다 했다. ‘전문의들은 손가락만 넣어 봐도 게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던데’, ‘게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진료실로 들어가란다.

‘에라 모르겠다’

나에게 선택지는 없다. 게이가 아니고서야 남성의 항문에 콘딜로마가 발생할 확률은 지극히 낮고 의사가 나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어? 게이네? 더러운 게이새끼’라고 생각해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다. HIV감염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상황을 마주해도 나를 받아

줄 병원도 많이 없기에 어떤 수치스러움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HIV감염인이라고 수술을 거부한다 한들 거부하는 사람에게 수술을
강제로 맡길 수도 없다. HIV감염인인 남성 동성애자의 항문콘딜로마는
어쩌면 HIV를 밝히고도 온전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검증된
병원을 찾는 긴 여정과도 같다는 생각을 했다.

진료실 입장.

“어떤 것 때문에 왔어요?”

“항문 안쪽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요”

“당뇨나 고혈압 있어요?”

“고혈압 있어요”

“병원 다녀요?”

“네(주기적으로 가요)”“고혈압 관련해서 무슨 약 먹어요?”

“몰라요 무슨 약인지는... 심장 관련 약을 먹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약만 먹어요?”

‘혈관질환 관련해서 약을 하나 더 먹는데 뭘 먹더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다시 물어본다.

“하루에 약을 몇 개 먹어요? 하루에 입에 들어가는 알약 총 개수를

이야기해주세요”

(‘아 콜레스테롤 약도 먹는구나, 근데 HIV치료제를 이야기 해야 하나?’)

“콜레스테롤 약 먹어요”“그렇게 두 개?”

(‘HIV치료제는... 넘어가도 되겠지..?’) “네”

진료베드에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웅크리고 옆으로 누우란다. 자세를
취하니 의사가 손가락에 젤을 듬뿍 묻혀 항문에 넣는다. 다른 뎀 이게
좋은데 너무 불쾌했다. 이리저리 만지더니 “깨끗한데요?” 란다. ‘아니야
거기가 아니라고 잘 좀 해봐’라고 생각하며 자세한 위치를 알려주니 몇

번 만지고 내시경을 넣었다. 콘딜로마라며 “항문섹스 했어요?” 묻는다. 울 것이 왔구나 생각하며 “네”라고 대답했다. 치핵 쪽에 있어서 치질 수술이랑 비슷할 거고 콘딜로마로 보이는 애들은 다 제거할 것이다 이야기 한다. 질문 있냐고 묻는다. 아는 정보가 없는데 뭘 더 묻기도 애매하다. 없다고 하고 진료실에서 나왔다.

카운터에서 수술날짜를 예약했다.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해야 한다. 콘딜로마 수술을 할 때 하는 혈액검사에는 대부분 HIV검사가 포함되어있는걸 알고 있기에 조금 단념했다. 혈액검사로 알게 되는 질환이나 검사 목적에 대한 고지는 하나도 듣지 못했다. 일단 소변검체를 제출하고 채혈실에 갔다. 피를 뽑고 병원을 나섰다.

이틀이 지나 오늘(2021년 3월 31일)이 됐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 중에 사무실에 거의 다 와서 전화가 와서 받았다. 혈액검사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기 위한 전화였다.

“병원이에요. HIV간이검사에서 HIV양성이 나왔어요. 알고 계셨어요?”

“네”

“보건소에 등록도 되신 거죠?”

“네”

“그럼 저희 보건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운전 중이기도 하고 묻는 거에 대답하는 것도 바빠 뭘 물어보지도 못했다. 내가 제일 처음 콘딜로마 커밍아웃을 한 포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병원에서 HIV양성 나왔다고 연락 왔는데 이 통화 이후에 아무 말도 없다. 이거 수술 약속은 잡아놨는데 수술은 진행되는 걸까?”

“취소되지 않았을까? 다시 확인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겠지?”

업무를 보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수술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전화했다.

“저 오늘 아침에 통화 했었는데요. 저 수술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상훈입니다”

“아, 수술은 원래대로 진행이 되고요 HIV양성이라 추가금액 5만원 더 내시면 돼요”

“5만원을 더 내요? 왜요?”

“사용하시는 식기나 수술포, 수술복이나 환자복 그런 것들을 다 폐기해야 해서요 그래서 5만원이 추가결제가 돼요”

“뭘 폐기한다고요?”

“수술할 때 쓰는 수술포나 환자복 그런 것들 이용하시고 나면 폐기해요”

“왜요?”

“환자복을 원래 재사용을 하는데 HIV라서 폐기해요”

“그 병원은 감염병 관리규칙 준수 안하면서 수술하나요?”

“아뇨 그런 건 아니고 다 지키면서 수술하죠”

“근데 왜 폐기를 해요?”

“빨래를 같이 돌리면 HIV가 다른 환자복이랑 섞이기도 하고...”

“HIV가 일상생활로 전염 안 되는 건 알고 계신 거죠?”

“네 알죠”

“근데 폐기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견 명백한 차별이고요.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인권위에 진정 넣겠습니다. 그렇게 알고계시고요. 수술일정은 취소해주세요”

전화를 끊었다.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작성했다. 내 정보를 기입하고 진정 대상을 해당 병원정보로 기입하고 진정 사례를 작성했다. 증거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일단 기입된 내용으로라도 뭔가 수사가 진행되겠지 싶었다. 진정사례를 적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HIV감염사실을 알고도 수술을 해준다는 사실에 감동을 해야 하는 건가?’

‘어떻게 의료인이 HIV예방을 사용물품 전량폐기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쓴 물품을 다 폐기한다고? 지금 나한테 더럽다고 하는 건가? 난 더러운 인간인가?’

‘아니 어쩌면 인간취급도 안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

‘난 HIV감염인일뿐 더러운 사람은 아니야’

‘원래 한국의 HIV인식은 처참하다. 제대로 인식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렵지, 의료인이라고 비의료인과 인식이 더 낮지 않은 건 이미 알고 있었다.’

‘의료 차별, 더 심하게는 의료 거부를 당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했으니까 괜찮다. 다음을 바라보자’

아니, 사실 괜찮지 않았다. 현실은 상상한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현재에도 출되는 다음은 내 선택이 아닌 불가피하게 따라야하는 다음이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콘딜로마를 옮은 상황도 짜증나고, 가다실을 비싸게 공급하는 회사도 짜증나고, 보험도 안 해주는 정부도 짜증나고, 의료차별을 하는 병원도 짜증나고, HIV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세상도 짜증나고, 10년 정도 HIV활동을 해왔지만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 무기력해졌다. ‘이 지랄을 또 해야겠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약간의 미동을 주기위한 활동을, 나를 받아줄 병원을 찾는 것을, 성매개 감염병은 다시 날 괴롭힐 수도 있고 난 다시 병원을 찾아보겠지.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또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겠지? 단념과 스스로의 위로를 반복적으로 해나가며,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사회를 살아가며 난 다시 답답해 할 거고 그럼에도 조금씩 긍정적인 면모를 바라보며 기운을 내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거쳐 가며, 진정서를 적으며, 5만원이라는 돈을 추가 지불해서 내가 나에게 대한 차별을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났다. 어떤 차별은 당하고 보상금이라도 받을 텐데 나는 왜 돈을 내가며 차별을 받아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염세적인 생각과 그럼에도 세상은 조금씩 바뀐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적절히 융화해 나가면서 진정서 작성을 마쳤다.

제출한 진정서가 나비효과가 되어 세상을 흔들지, 아니면 미미하게나마 병원을 변화시킬지, 아니면 정말 큰 변화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변화의 크기가 어떠한 적어도 긍정적인 방향일 것이라는 희망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성소수자로서 수치스럽지 않게 병원을 이용 할 수 있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 HIV감염인이 의료차별이나 거부를 걱정하지 않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 오기는 올까? 온다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주아주
친절하고
예쁜 미소로,
나에게
소리쳤다.**

어떤 농담

포니

새로 일을 시작한지 한 달 쯤 지났을 무렵의 일이다. 너가 게이일지라도 아무상관 없다는 회사에서 게이로 일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고있던 내게는 동갑의, 그 역시 게이인 직장 동료가 있었다. 나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입사한 그는 말과 행동이 조금 과장스럽고, 끼가 다분하며, 여기저기 말을 잘 붙일줄 알고, 심지어 얼굴도 잘 생긴 친구였다. 당시 회사에 그 친구와 나이가 같은 사람은 나 뿐이었는데, 그래서인지 그는 동갑을 빌미삼아 내게 한없는 관심을 보였다.

그런 그를 보고, 나의 관리자는 우리가 서로 친해지면 그와 나 모두 회사에 잘 적응하리라 생각했는지, 나는 그와 함께 점심을 먹는 경우가 잦았다. 마음에 점을 찍는 승고한 직장인의 일과. 그 시작에는 반드시 담배를 태워야 했다. 중요한 제식은 으레 향을 태우며 시작하지 않던가. 다행히도 그와 나는 둘 다 담배를 즐겨 피우는 사람이었다. 건물 지하주차장 한편의 작은 흡연실에서, 그날 역시도 우린 함께 점심제식 전 담배타임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한 치 오차없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빨리 캡슐을 터트리고 담배불을 붙여 한 모금 깊이 빨았다. 그사이 그는 아주 행복한 미소로 코트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초코에몽이었다. 그는 우아하게 빨대를 뽑아 꽂고는 한 모금 쪽 빨아 삼키고 평소보다 한 톤 높여 말했다.

"으음~~ 달아"

그리고 아주아주 친절하고 예쁜 미소로, 나에게 소리쳤다.

"너도 한입해! 나 에이즈 없어!"

아.

순간 온 몸이 멎는듯 했다.

알약을 천개 씹 먹었음에도 예기치 못하게 들려오는 '그 단어'는 나를 한껏 얼어붙게 만들었다. 뭐라고 말을 해야할까. 담배를 한껏 입에 담은 지금, 충분히 생각해내야한다. 다행히도 나에게겐 풍부한 혈중 니코틴이 있었다. 생각을 해. 폐가 두개인것은 담배연기를 오래 머금기에 좋았다. 대략 경우의 수는 3가지.

1. 감염인 인권 파이터가 되어 일장연설을 늘어놓는다.
2. "난 있는데"하고 당당하게 말한다.
3. "넌 웬지 에이즈 있을것 같애"라고 농을 걸친다.

1번. 안 된다. 그와 나는 친하지 않다. 그는 지금 기분이 좋다. 나는 분명 좋은 톤으로 말 할 수 없을것이다. 나를 매우 진지한 인간이라 생각할 것이다. 어휴 무슨 애가 농담도 못하니?그래. 그냥 농담으로 던진 말인데 뭐. 세상엔 그런 농담이 많다. 그리고 우린 모두 농담을 한다. 이미 사라진 농담이다. 나만 들은것이니 나만 잊으면 된다. 나는 마음이 넓다.

2번. 그 역시 농담으로 생각할것이다. 하지만 내뱉을 자신은 없다. 알약을 천 개쯤 더먹으면 좀 뻘뻘해질수 있을지도 모른다.

3번. 좋다. 이 교묘한 농담은 칭찬을 담을 수 있다. '넌 남자 많이 만나고 다닐것 같아'라는 의미. 게이들에겐 최고의 칭찬이다. 너가 잘생겼다는

뜻이니까. 못생긴게 어떻게 에이즈에 걸릴 수가 있겠어?문란한것도
능력이야. 질투를 담으면 훨씬 그럴듯할거야. ‘너 미모 좋잖아’를
덧붙이도록하자.

“넌 웬지 에이즈 있을것 같애. 너 미모 좋잖아.”

역시, 효과는 좋았다.

“야 아냐야~ 나 그런사람 아냐야~ 난 콘돔 꼭 끼~ 날 뭘로 보구?호호 ”
콧소리를 한껏 담아 그가 말했다.

재수없어 정말. 콘돔까지 잘끼다니. 잘났다. 너 아주 잘났다. 그래
나는 못나서 안짜했다. 무식해서. 나는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그래.
나는 눈을보면 거절을 못해. 마음이 약해서. 좋은 사람이라서. 그
사람도 좋아보였어. 두 팔로 나를 꼭 안아주고 나를 구석구석 훑아준
사람이라서.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사람같진 않았어. 몸에 이상도
없었구. 나한테 입맞추고 몸을 움직이는 동안, 기분이 좋아보였어.
표정에서 떨림에서 신음에서. 그래서 남기고 싶었어. 확인을. 누군가
나를 이렇게 예뻐해!라는걸. 그건 내 보답이기도 했어. 안에 싸도
되요. 허락해준거야. 그래... 내가 허락해준거야. 라고 속으로 대꾸할
뿐이었다.

“야, 뭐 먹지 우리?”

담배꽂초를 비벼끄며 그가 물었다.

“매운거. 칼칼하고, 뜨거운거. 갑자기 그런게 땡기네.”

내가 말했다.

나는 담배를 서둘러 껐다. 그 역시 내 사인에 맞추어 담배를 끄고 마시던
초코에몽을 쓰레기통에 넣었다. 아직 많이 남아있었는지 묵직한 소리가
났다. 좀 매운걸 먹으면 괜찮을것 같았다.

많이 매우면 금방 잊어버릴수 있을것이다. 나도, 오늘의 농담도.

너 진짜

또라이구나

“우리 존버합시다.”

휘아

나는 양극성장애 환자다.

이 병을 가지고 약을 먹은 것도 올해로 7년째가 되어간다. 10대 후반에도 정신과를 다녔지만 그 땐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 20대 후반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잠이 오질 않기 시작했다.

아무리 몸을 움직이고 피곤하게 일해도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았다. 그러다 정신과를 계속 내원하던 중에 내 질환을 알았다. ‘양극성장애’ 그러니까 조울증이였다. 단순히 불면증이거나 우울증인줄 알았는데 조울증이라는 소릴 듣고 많이 놀랐다. 인정하기도 싫었다. 왜냐하면 이 질환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타인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어렵사리 털어놓으면 돌아오는 대답들은 “그거 다증인걸 아니냐?” “야 그럼 너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 좋았다가 나빠져?” “너 진짜 또라이구나.” 등등의 이야기들과 가족들도 내 질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아직까지도 인정해주거나 지지해주진 않는다. 그나마 이런 나를 지지해주는 건 친한 친구들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헛소리 하던 사람들과는 과감하게 인연을 끊어버렸다.

편견 가득한 말로 애써 위로하려는 말들이 듣기 싫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들이 “난 이해 못하겠어.” 라고만 해줬어도 이렇게 상처받진 않았을 거 같다.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말과 표정들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도 다행인 건 그 자리에서 쌍욕을 퍼부어서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들었다는 게 좋았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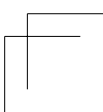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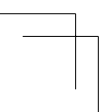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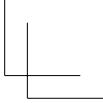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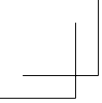
나도 여러 일들로 차별을 많이 받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생각이 항상 들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엔 언제나 분노의 글, 혹은 눈물 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곤 한다. 그럴 때 뭐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내가 내린 결론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열어줬다. 단,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한해서였다.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부터 제대로 들으려 했다.

그래서 나는 더 분주하게 설치고 떠들고 말하고 생각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자신이 HIV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태까지 HIV/AIDS에 감염인이라고 먼저 이야기 한 사람들만 봤지, 자신이 감염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처음이었다.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들어주고 싶어서 HIV/AIDS 상담을 많이 해 본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물어봤다. 운이 좋게도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 뒤로도 시시때때로 연락이 오면 그 때 마다 최대한 들어주려 노력을 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흐르고 이번엔 “사실 제가 HIV 감염인 인데요 휘아씨한테 이야기 하고 싶어요.” 라고 담담한 연락이 왔었다. 나는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서로의 일상을 소소하게 나눴다.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나도 무너질 때가 있었다. 성인이 되고 자살시도를 여러 번 했고 최근 5년 이내에는 세 번 정도가 있었다. 최근에 사고를 치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했지만 정신차리고 보니까 남은 건 “존버는 언젠가 승리한다.”는 말이었다. 존나게 버티다 보면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생긴다. HIV/AIDS 감염인

친구들의 큰 버팀목이 되고 싶다. 아직 내가 죽기엔 너무 이르고 하고 싶은 돈지랄도 못해보고 죽기엔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차별에 같이 싸우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신나게 웃고 떠들고 노는 걸 평생 하고 싶다. 누가 손가락질하고 존재를 부정하고 지우려 해도 우린 존나 버티면 된다. 싸움에서 확실히 이기는 방법은 그냥 존나 버티는 쪽이 이기는 거 라고 누군가 그랬다. 매일매일이 전쟁인 이 삶, 하루 버티고 이틀 버티다 보면 조금은 나은 삶을 살게 될 거라 믿는다. 우리가 어떤 질환으로 힘들어서 혹은 사람들의 눈초리와 편견 때문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은 노래가 하나 있다. '미미시스터즈'의 <우리 자연사 하자> 라는 노래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흥얼거리며 모두 준비하는 삶을 꿈꾼다. 나부터 준비하겠다.



나가며; 소주의 한마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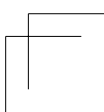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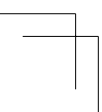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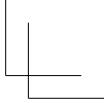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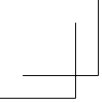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범한, 그리고 비범하기도 한 보통의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이런 이야기들도 언젠가 식상하게 될까요?

평범하고, 비범하고, 식상한 보통의 존재들과 술한잔 합시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주세요.



제작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홈페이지 Communityr.org / 커뮤니티알.org

인스타그램 [@communityr_official](https://www.instagram.com/communityr_official)

페이스북 [facebook.com/R.YPLWHA](https://www.facebook.com/R.YPLWHA)

이메일 r.ypcok@gmail.com

전화 010.2164.1201

후원 국민은행 077201-04-121845 커뮤니티알

bit.ly/커뮤니티알

디자인 : 김상원

0+2
한국청소년·청년
감염인커뮤니티알

